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School Life of the Freshmen Selected by Admissions Officers Screening

전경애
국민대학교

Kyung-Ae Jun(myumul@kookmin.ac.kr)

요약

입학사정관제는 점수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개별학생들이 지닌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2008학년도 입시부터 처음 도입된 전형인 입학사정관제는 2012학년도에는 전체 대학 모집인원의 11.8%를 뽑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실제 학교생활을 분석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이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며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측정변인으로 선정된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에 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은 모든 변인에서 타 전형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고, 학교적응도와 학교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태도에 있어서 행동적 측면의 수업태도는 부족함을 나타내었다. 이에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들이 지닌 긍정적인 학교적응도와 학교만족도를 보다 고취시키며, 학습태도를 개선하기위한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입학사정관제 | 입학사정관 전형 | 학교적응도 | 학교적응도 | 학교만족도 | 진로성숙도 | 학습태도 |

Abstract

Admissions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in an effort to reject the score-oriented competition and select students on the basis of their individual potential and capacity.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for the 2008 school year in Korea, has been operated by expanding the recruiting level up to 11.8% of the number of the students to be admitted by all colleg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by analyzing the true picture of school life led by the students singled out through admissions officer screening, and further to inquire into the substantial plan to support the students, who were selected through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for their successful college life while displaying their potential and capacity

As a result of doing research on this, it was found that the freshmen selected through admissions officer screening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s in all measurement variables this study selected, such as school adaptability, school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learning attitude than other students screened in a different way; in addition, school adaptability and school satisfaction came out as significantly high variables statistically. However, they showed insufficiency in the attitude in class from the behavioral aspect in learning attitude. This study made a suggestion that it's necessary for systematic support and management program to be mapped out and provided in order for the students selected through admissions officer screening to improve their learning attitude as they inspire themselves with school adaptability and school satisfaction.

■ keyword : | Admissions Officer System | Admissions Officer Screening | School Adaptability | School Satisfaction | Career Maturity | Learning Attitude |

* 본 연구는 2011년 입학사정관 운영지원사업비로 수행되었으며, 필자가 지필한 연구보고서(2012.02.27)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입학사정관제는 2004년 10월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 개선안'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법으로 소개되어 도입이 논의된 입시제도이다. 이후, 2008학년도 대학입학에서 10개 대학, 254명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후, 2009학년도에 41개교 4,476명을 선발하던 수준에서 2012학년도에는 120개교 42,163명(대입 총 모집인원 대비 11.8%)를 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자리잡아가고 있다[1].

입학사정관제도는 점수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개별 학생들이 지닌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존의 대입전형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방법으로, 그간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입되었다. 각 대학들은 교과 성적 중심의 기계적인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교유의 인재상과 평가준거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대학의 설립이념과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전형개발 및 평가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시행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 입학사정관 역할의 불명료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입학사정관제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2].

2008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처음 운영된 이후, 지금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 투입된 정부 재정과 같은 양적 수치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을 통해 "과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우수한 학생,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였는가?"에 대한 성과분석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3].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에 대한 연구 내용은 크게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대학입학전

형제도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정책 방향이나 운영현황,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의 소개, 정책 제언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3]. 반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입학사정관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의 대학입학선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대학 입학 전형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학생들의 실제 학교생활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입학사정관제 발전가능성을 가능하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의 첫 학교생활의 적응도, 만족도, 학습태도,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평가 방법과는 다른 평가로 선발한 학생들이 선발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입학 이후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및 지원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의 학교만족도, 학교적응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들의 학교만족도, 학교적응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 중 가장 뛰어난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입학사정관전형 재학생과 타 전형 재학생 사이에 학교만족도, 학교적응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과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만큼 전형의 취지에 맞는 학생이 선발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학교생활에서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가 뛰어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물을 참고로 하여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들의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학교적응도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후기 청소년기는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과제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대학신입생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발달 과업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교육환경의 변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서의 전환, 주도적인 학업생활의 요구, 새로운 대인관계,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기대 등은 신입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이로 인해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4]. 특히, 우리나라 대학신입생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때 까지 대학입시만을 목표로 하는 지시와 타율에 의한 수동적인 생활을 해왔다가 대학생이 되어 갑자기 자율적인 생활과 주도적인 학업생활을 하도록 요구받으면서 학업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5].

대학생의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대학생활을 지속하고 학업을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조직 구성원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가지며 대학생활에서 한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에 능동적이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6]. 다시 말해, 대학생의 학교적응은 대학이란 환경과 학생 사이

에 활발한 상호교환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또한 맞춰가는 과정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며 대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물들은 대학생활의 적응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개발해 왔다.

대학생활의 적응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는 Baker와 Siryk(1998)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조사도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로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확인해 내는 진단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교생활적응 조사도구는 학업적 적응(academic adjustment),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개인-감정적 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일반적 적응(overall adjustment)로 구성되어 있다[7].

국내 4년제 대학 12개교 1,38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분석하고 학교생활적응 모형을 예측한 문승태(2006)의 연구결과에서 인문계 출신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친구교제, 학교시설 이용, 대화의 정도 등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며, 실업계 출신 대학생의 경우, 교수의 지지, 컴퓨터 활용시간, 모직업, 아르바이트 등이 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대학입학 유형별 학교 적응도를 살펴본 이두현(2009)의 연구에서는 특별전형의 학생들의 적응도가 일반전형 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별전형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나 관심분야가 일반학생들보다 다양한 편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 및 욕구도 다양한데 비해 대학에서 제동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적응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런 맥락에서 대학은 뛰어난 재능과 능력으로 선발된 특별전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9].

국내 대학 신입생 180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 적응도를 비교 분석한 김보나(2011)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은 첫 학기에 정시나 수시 일반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들보다 대학적응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위영역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2.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란 학교라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사, 또래 집단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충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이며 생활의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다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 정의되어 진다[9].

대학생의 학교만족도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Berndt, T.J(1999)는 교수,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생지원 서비스, 시설, 교육여건, 교과목 이수 기회, 교수의 학생에 대한 태도, 학교의 변화와 전망, 행정에 대한 믿음, 다양성 추구, 교육자원과 사회적 평판 등 대학의 환경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교육내용까지 포괄하여 조사도구를 제작하였다[11].

대학생 840명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를 조사한 이두현(2009)은 선행연구물에서 사용한 대학 만족도 조사도구를 분석한 후, 교육기관 만족도 조사도구는 교수영역, 수업, 교육환경 및 시설, 학사운영 등은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준거이며, 편입생과 일반 입학생의 학교만족도를 비교분석 한 후, 학교만족도에 있어서 편입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9].

전국 각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교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척도들을 모아 내용분석을 한 후, 학교와의 일체감, 교수와의 관계, 대학운영정책, 전공에 대한 만족, 동료관계, 선후배관계, 학생회에 대한 만족, 사무직원과의 관계, 장학금, 도서관, 취업가능성, 복지시설이란 1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대학생 830명의 응답 자료를 요인분석한 김준곤 외 3인(1991)의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관계, 학교정책에 대한 만족, 사무직원과의 관계, 도서관, 장학금, 학교의 진로대책, 취업가능성 순으로 대학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개인적 요인 중 자신감, 유능감, 확고한 인생목표, 개인적 행복

감 등에 관련된 문항들이 본인의 대학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지방대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를 조사한 김경희(2011)의 연구에서 대학의 자긍심, 교육서비스, 개인흥미요인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3. 진로성숙도

대학생들은 대학입학과 더불어 전공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일련의 선택과 더불어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전공 선택과 관련되고 나아가 직업을 정하고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 진로결정의 문제는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양식 등 개인의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 동안 반드시 달성해야할 가장 어려운 과업이다[14].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지도도를 받을 기회도 적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장래의 전망보다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탐색의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진로에 관련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입생들은 입학 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14].

국내 4개 대학 245명을 대상으로 한 양명희외 2인(2010)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직업 흥미수준 전공과 흥미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들은 대학에서 전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5].

개인의 특성변인 즉 전공, 성별, 학년, 출생서열, 지역 등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 국내 4년제 대학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진희(2009)의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4학년과 신입생에 비해, 2학년과 3학년의 학생이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 집단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16]. 사립대학교 345명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한 김형균(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도는 상승하였으나, 4학년의 진로성숙도는 3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

국내 대학생 68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심일보(2009)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인문계열, 사범계열, 의학계열이 사회계열, 공학계열보다 유의미하게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학과별 취업가능성 및 전망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8].

4. 학습태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가정할 때, 자기소질을 개발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사회참여 경험 등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하는 일은 전공분야의 학문에 대한 성공적인 학습일 것이다.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는 학생변인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가치의식, 학습 접근방법, 학습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축적된 생활습관의 형태로 각 개인에게 내제된 행동양식으로 자리잡기 때문에 그만큼 개선하기 힘들다. 이에 학습태도에 관련된 연구물들은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학습태도를 이룬 시기부터 초기에 갖추어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들다[19].

대학생은 성인이기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며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학습태도를 지도하는 것은 대학교육에서 할 필요가 없거나 미비한 일로 치부되고 있다[20].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며 부여받게 되는 '갑작스런 자율'에 대해 대학생은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적인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학환경 적응에 실패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습태도는 학습에 대한 가치의식, 학습양식, 학습에

대한 지속적 노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말해 대학에서의 학습과 관련된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김충희와 문은식(2001)은 학습태도를 인지적 학습태도, 정의적 학습태도, 행동적 학습태도의 복합체로 정의한 후 국내 사립대학 2개교, 국립대학 1개교의 474명을 대상으로 학습태도를 조사하였고, 연구결과 대학 간에 인지적 학습태도, 정의적 학습태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행동적 학습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학습태도는 출석, 과제 수행의 정도, 강의 집중도,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도, 좌석 위치, 강의시간의 시선 집중 등 학습활동에 있어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구성요인들 중에서 특히 수업 출석률은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학업성취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동적 학습태도를 선행연구물들은 강조하고 있다[19].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특성화모집단위 운영학인 K대학은 2011학년도에 경영학부 전체 정원 220명 중 50명(22.7%)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처음 선발하였다. 이는, 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이 전체 입학정원의 10.1%를 선발했던 규모임을 감안해보았을 때, 단일 학부에서 20%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규모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의 일반전형 입학생, 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 입학생,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첫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경영학부 1학년 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3부(72.9%)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학생들의 분포를 전형별로 보았을 때, 수시 전형 43명(27.6%), 입학사정관 전형 26명(16.7%), 일반전형 84명(53.8%)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구분	하위영역	N (%)	실제 입학생수
입학전형 유형	수시전형	43 (27.6)	53 (24.1)
	입학사정관 전형	26 (16.7)	43 (19.5)
	일반전형	84 (53.8)	124 (56.4)
지역	서울특별시	68 (44.44)	
	광역시	20 (13.07)	
	중소도시	45 (29.41)	
	읍면지역	16 (10.46)	
	기타	4 (2.61)	
성별	남학생	87 (56.86)	
	여학생	66 (43.14)	
총합 : 153명 (100)			

표 2. 설문지 문항구성

구분	하위변인	문항내용 및 문항수	내적신뢰도
측정변인	학교만족도	학교시설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8문항)	.78
	학교적응도	진학지속의지 및 생활적응도 (6문항)	.85
	진로성숙도	진로개척의지 및 확신 (5문항)	.80
	학습태도	학습태도 및 수업태도 (15문항)	.81
개인변인	입학전형유형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정시 중 대학입학 전형	
	출신학교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및 설립유형	
	입학사정관 전형준비여부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및 응시여부	

2. 측정도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들에게서 측정하고자 설정된 변인은 학교만족도, 학교적응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이다.

각 측정변인의 문항 수, 문항 예시,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2.1 학교적응도

Baker와 Siryk(1998)가 개발하여 번안되고 수정되어 사용되는 학교생활적응 조사도구(SACQ)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감정적응, 일반적 상황에 대한 적응이란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7].

학업적 적응(academic adjustment)은 학업에 대한 동기, 욕구에 좌절되었을 때의 행동, 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하위 세부 요인은 학업동기(motivation), 학업 수행(application), 학업 성과(performance), 학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academic Environment)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관계 속의 일반적인 만족도(general), 타인과의 관계(other people), 집에 대한 그리움(nostalgia),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social environment)라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감정적 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지향, 자기가 치 등 개인의 인성 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존재의 본질, 지위,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하며,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신체적 적응(physical)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상황에 대한 적응(overall adjustment)은 대학에 대한 유대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의미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적응도, 소속 학교에 대한 적응도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명(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 생활적응 조사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21].

2.2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 조사도구는 고육재(2007)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만족도는 교우관계, 교수관계, 학교시설 및 정책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22].

2.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이진희(2009)의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 중 태도검사 문항에서 결정

성과 독리성 영역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6].

2.4 학습태도

학습태도는 고은영의 3인(2010)이 사용한 한국판 대학생 학업태도 측정도구와 구체적인 수업태도를 확인하기 전경애·박정환(2010)이 사용한 수업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3][24].

VI. 연구결과

1. 학교적응도

학교적응도 검사결과, 경영학부 1학년의 학교적응도는 평균 3.08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의 학교적응도 평균은 3.66으로 보통(3점)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항별로 보았을 때, “K대학은 내가 다니기를 희망했던 대학이다.”라는 문항의 점수는 2.12점으로 현재 신입생이 가장 낮은 점수로 응답한 문항이며,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은 “나는 K대 학생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닐 것이다.”라는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입학사정관전형 재학생들과 타 전형 학생들과의 학교적응도에 차이가 알아보기 위해서 세 집단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F통계값은 10.97, 유의확률은 .00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입학전형에 따라 학교적응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에 따른 학교적응도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입학전형은 수시전형과 입학사정관전형, 일반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표 3. 입학전형에 따른 학교적응도 사후비교분석

구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수시 VS 사정관	-.53	.19	.02*
수시 VS 일반	.26	.14	.19
일반 VS 사정관	-.79	.17	.00**

*P<.05, **P<.01

2.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 측정결과, 1학년 신입생 학교만족도는 2.84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의 학교만족도는 3.23점으로 보통(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나는 전반적인 대학 복지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재학생이 가장 낮은 응답반응으로 보였으며, “나는 과 동기와 잘 어울려 생활한다.”라는 문항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과 타 전형 학생들과의 학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F통계값이 8.80점, 유의확률은 .00로서 입학전형에 따라 학교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입학전형에 따른 학교만족도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입학전형에 따른 학교만족도 사후비교분석

구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수시 VS 사정관	-.35	.19	.05*
수시 VS 일반	.19	.11	.23
일반 VS 사정관	-.93	.13	.00**

*P<.05, **P<.01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검사결과, 전체 경영학부 재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3.68점으로 보통(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들 또한 3.77점으로 보통(3점)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다는 문항의 점수가 2.85점으로 전체 신입생이 가장 낮게 응답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들과 타 전형 학생들과의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F통계값은 1.43, 유의확률은 .24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입학전형에 따른 측정변인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

측정변인	전형 별			제공합		df	F	유의확률
	수시전형 평균(SD)	사정관 평균(SD)	일반전형 평균(SD)					
학교적응도 3.22 (.77)	3.13 (.78)	3.66 (.80)	2.87 (.73)	전형	12.54	2	10.97	.00**
				오차	84.03	147		
				합계	96.57	149		
학교만족도 2.94 (.50)	2.88 (.63)	3.23 (.62)	2.7 (.25)	전형	5.71	2	8.80	.00**
				오차	48.29	149		
				합계	53.99	151		
진로성숙도 3.68 (.67)	3.53 (.68)	3.77 (.65)	3.72 (.69)	전형	1.32	2	1.43	.24
				오차	68.51	148		
				합계	69.83	150		
학습태도 3.08 (.56)	3.07 (.58)	3.15 (.52)	3.03 (.57)	전형	.054	2	.09	.92
				오차	45.81	145		
				합계	45.87	147		

*P<.05, **P<.01

4. 학습태도

학습태도 측정결과, 1학년 신입생 학습태도는 3.08점으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습태도는 3.15점으로 보통(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나는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 신입생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나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과 타 전형 학생들과의 학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F통계값은 0.09, 유의확률은 .92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입학전형에 따른 학습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입시에서 단순히 점수만이 아닌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되어진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들이 첫 학기 대학생활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성장해 가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분석 결과와 이를 통한 시

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 전체의 학교적응도는 3.22점인데 비해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교적응도는 3.6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낮고 학교적응도도 높다는 박상규(2011)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5].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학교적응도와 애교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긍정적 적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신입생 전체의 학교만족도는 2.94점인데 비해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교적응도는 3.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교수만족도, 학교복지 만족도에서 모두에서 입학전형에 관계없이 모든 전형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여준 만큼, 학생과 교수진과의 관계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교내 학생들 간의 관계를 활성화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며 시급함을 보여준다.

셋째, 신입생 전체의 진로성숙도는 3.68점이고,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은 3.77으로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은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다.”는 문항에 가장 낮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진로성숙도 문항의 응답과 학습태도의 문항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입학사정관전형 재학생들은 의욕적인 정의적 태도는 높으나, 이를 실천하는 행동측면에 있어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공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회 및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추수관리 프로그램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신입생 전체의 학습태도는 3.08점이고,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은 3.1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습태도를 정의적인 학업의지 측면(3.45점)과 수업현장에서 보여주는 수업태도의 측면(2.85점)에서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들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 수업현장에서 보여주는 수업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결석이나 지각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다."(2.58점), "나는 수업관련 교과서나 참고문헌을 수업전이나 수업 후에 읽는다."(2.78점)으로 학습관리나 습관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물에서 수업태도는 학업성취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만큼, 신입생의 학습태도를 행동적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19].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네 가지의 측정변인 중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은 변인이며, 학습태도가 가장 낮은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된 모든 변인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은 학교적응도와 학교만족도였다.

이는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오해와는 달리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해보아도 학교만족도와 학교적응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학교적응도와 만족도를 기초로 그들의 잠재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추수적인 지원과 관리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측정변인으로 설정한 변인 중 학습태도의 경우,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이 가장 낮은 응답

을 보인만큼, 추수 지도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면담 및 질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도구를 통한 양적연구로서 기술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 신입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학습에 대한 어려움 및 부정적으로 고착된 학습태도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입학사정관제 운영성과 및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재학생에 대한 연구가 개별대학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재학기간 동안의 변화추이, 졸업 후 진로, 타 전형학생들과의 비교, 전형 연도별 비교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입학사정관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오성근,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과와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Issue Paper, 2011.
- [2] 김미란,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 [3] 정훈, *한국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다차원 정적분석 모형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 김성경,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집, pp.215-237, 2003.
- [5] 임양미, 우미예, "대학 신입생의 자아개념과 관련된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pp.1-30, 2006.
- [6] 김보나, *입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10.
- [7] R. W. Baker and B. Sirky,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32, pp.94-103, 1989.

[8] 문승태,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예측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8권, 제2호, pp.247-267, 2006.

[9] 이두현, 대학 입학유형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 김보나, 선발방식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1] T. J. Berndt,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4, pp.15-28, 1999.

[12] 김준곤, “대학생활 만족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4권, 제1호, pp.154-167, 1991.

[13] 김경희,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11권, 제8호, pp.378-387, 2011.

[14] 박동열, 김대영,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제25권, 제2호, pp.1-32, 2006.

[15] 양명희,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pp.137-156, 2010.

[16] 이진희,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스트레스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7] 김형균,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심일보, 대학생의 특성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9] 김중희, 문은식, “대학생의 학습태도 분석 연구-학습양식을 중심으로, 교육발전논총, 제22권, 제2호, pp.247-274, 2005.

[20] 신정철,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1호, pp.287-313, 2008.

[21] 이재명,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22] 고옥재, 대학생 동아리 활동에 따른 여가태도와 학교생활만족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3] 고은영, “한국관 대학생 학업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pp.103-127, 2010.

[24] 전경애, 박정환, “지방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37권, 제1호, pp.57-81, 2010.

[25] 박상규,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대학차원의 성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책포럼, 2011.

감사의 글

연구진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전 경 애(Kyung-Ae Jun)

정희원



- 1998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2001년 7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8년 2월 ~ 2011년 9월 : 제주한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 시간강사
- 2010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박사수료)
- 2010년 9월 ~ 2011년 9월 : 중앙원격평생교육원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 <관심분야> : 입학사정관제, 고등교육, 대학평가, 의학교육